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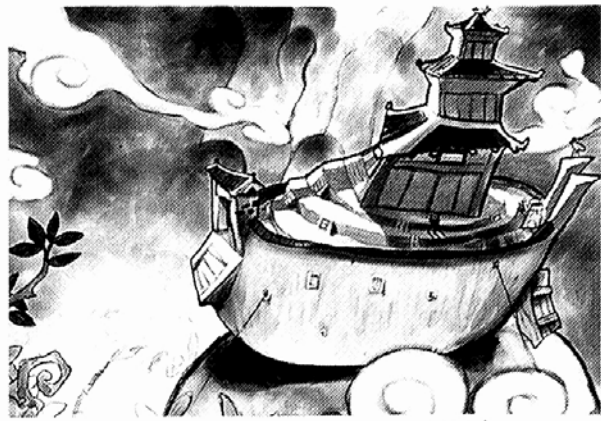
공개제작을 원칙으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 '바리공주'는 현재 인터넷 공간 바리방에서 인물과 구성, 음악 등의 분야에 걸쳐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불교설화 '바리대기 이야기'

애니메이션화

장선우감독 '바리공주' 2002년 개봉 인터넷상 의견수렴 공개 제작

영화 '화엄경'과 '거짓말'이 보여준 것처럼 극과 극의 작품세계를 오가는 문체적(?) 영화 감독인 장선우씨가 불교설화인 바리대기이야기를 애니메이션 '바리공주'로 제작한다. 애니메이션 바리공주는 조선 민화를 밑바탕으로 고려불화, 고구려 벽화, 나아가 동양 미술의 전통 위에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오는 2002년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설화 바리대기는 불국사 국왕의 일곱째 딸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바리가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위해 머나먼 서천서역으로 갈로를 구하러 가는 험난 여정을 통해, 효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훈적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이다. 애니메이션 바리공주는 이같은 원작을 중심으로 교훈적 측면보다는 민화적인 재미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인터넷 공개제작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겠다고 장담하고 나선 장 감독은 현재 인터넷상에 바리방(www.bari.co.kr)을 개설해 놓고, 애니메이션 '바리공주'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독창적인 문화상품을 제작하겠다는 것이 장 감독의 의도다. 공개제작 체제로 만들어질 애니메이션 바리공주에는 주인공인 바리와 여섯공주, 왕과 왕비를 비롯해, 석가여래와 삼천제자,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 시왕과 저승나할 등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인터넷 바리방에 설치된 이미지보드방에서 이들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작방식을 수렴하고 있다. 각색 콘티방에서는 내용 전개와 장면 하나까지 네티즌들이 의견을 내도록 해 놓았으며, 소리방에서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음, 효과음으로 사용할 전통음악과 창작음악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감로수, 관세음보살, 반야공손 등 일련이론에 익숙치 않은 불교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바리용어사전도 별도로 만들었다. 장 감독은 "애니메이션 바리공주



바리방 이미지 보드방에서 선보인 '반야공손'.

살과 관세음보살, 시왕과 저승나할 등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인터넷 바리방에 설치된 이미지보드방에서 이들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작방식을 수렴하고 있다. 각색 콘티방에서는 내용 전개와 장면 하나까지 네티즌들이 의견을 내도록 해 놓았으며, 소리방에서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음, 효과음으로 사용할 전통음악과 창작음악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감로수, 관세음보살, 반야공손 등 일련이론에 익숙치 않은 불교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바리용어사전도 별도로 만들었다. 장 감독은 "애니메이션 바리공주

이야기는 서사무가 바리대기를 토대로 불교(佛敎), 선(禪)사상과 관련된 주요문헌들에 힘입어 짜여진 이야기"라면서 "이를 일차적 자료로 삼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태고 자유롭게 응용해, 새로운 형식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바리공주가 만들어지길 희망하고, 또 될 것"이라고 제작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장감독을 비롯한 애니메이션 바리공주 기획팀은 26일부터 1박2일간 해남 미항사에서 장선우를 겸한 기획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은자 기자 (eje@buddhopia.com)



2000 시드니올림픽 남자마라톤에 출전하는 이봉주 선수가 23일 서울 잠실 올림픽 보조 경기장에서 트랙을 돌며 훈련을 하고 있다.

"시드니 金향해 불심으로 달린다" 이봉주 '올림픽 출사표'

"지난 6개월 동안 하루 50km 이상을 뛰는 강훈련을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생각입니다." 2000 시드니올림픽 남자마라톤 금메달 유망주인 불자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30)가 시드니로 떠나기에 앞서, 23일 서울 잠실 올림픽 보조 경기장에서 각오를 밝혔다. 96 애틀란타올림픽과 함께 도쿄마라톤 등에서 2위로 입상해 '만년 2위'라는 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는 이 선수는 이번만큼은 절대 금메달을 양보할 수 없다는 굳은 각오로 묵묵히 훈련에만 전념해 왔다. "훈련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달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참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들을 위해 부처님께 매일 지극 정성으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이번 시드니올림픽 마라톤 코스는 언덕이 27개나 될 정도인데다 경사도 심해 역대 올림픽 중 최대의 난코스라고 알려졌다. 그래서 이 선수는 지난 7월부터 2개월동안 시드니와 기후 및 지형이 비슷한 뉴질랜드 해밀턴에서 훈련하며 철저히 코스에 대한 대비를 해 왔다. 김주일 기자(jkim@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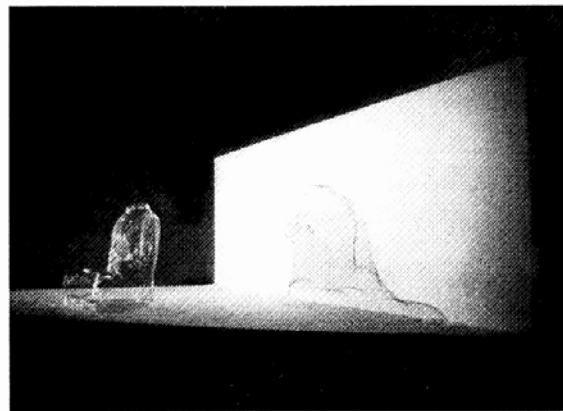
이색 설치미술 전시회

'이동하는 몸 흔들리는 땅'

9월 12일까지 문예진흥원

욕망과 이기심 빠져나간다

며, 심산유곡의 물소리가 흘러나오는 절망변기 또한 욕망의 한계에 갇힌 인간욕망의 배설구를 일순간 천상의 반열로 들어올린다. 이씨는 금지와 억압의 기호로 인식되던 절망에 부드럽고 온화한 공기와 빛을 통과시켜, 따뜻한 피부로 변모되는 과정을 통해 '스테이트·2000'이라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현했다. 형상과 재료, 제작과정 모두에서 자아의 본질을 향한 작가의 탐구적이고 수행자적인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이동하는 몸, 흔들리는 땅' 전시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29일~9월 12일까지 열린다. 전국에서 엄선된 16명의 작가가 사진, 비디오, 웹 설치, 회화 등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새로운 시각과 시도로 관람객의 눈과 마음을 흔들여 놓기에 충분하다. 제1전시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땅, 가상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땅 등 '흔들리는 땅'의 실존적 현상을 표현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제2전시실은 이문형의 '스테이트·2000'을 비롯해 변형되고 조각된 신체, 떠돌아 다니는 몸, 어리둥절하게 움직이는 관객의 몸으로 나타나는 '이동하는 몸'을 통해 몸이 함의하는 현대의 다양한 이슈들을 형상화 하고 있다. (02)760-4608 이은자 기자



절망부처를 통해 투명한 빛과 공기가 뒷면에 따뜻한 피부로 형성된 이문형씨의 '스테이트·2000'.

문·화·단·신

2000년 고미술 특별전

다보성고미술상설전시관은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2000년 고미술특별전시회'를 28일~9월 8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는 탑의 4면에 각각 불좌상(佛坐像)이 새겨진 '금동칠층소탑(삼국시대)', 세련되고 안정감 있는 조각솜씨를 보여주는 '도금은제관음보살좌상(고려시대)', 1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10족짜리 '나한상 화합', '고지도(조선시대)', '수레바퀴모양토기(가야시대)' 등 2000여 점의 귀중한 고미술품이 전시 판매된다. (02)581-5600

불교미술대전 작품 접수

불교미술의 새로운 이해와 지평을 열고, 2000년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18회 대한민국의 불교미술대전 작품접수가 임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9월 4일까지 공모원서를 배부하고, 9월 8일까지 작품접수를 마감한다. 전통과 현대를 나뉘 회화, 조각, 공예, 서예, 평면, 입체작품을 접수하며, 20세 이상 기성 및 신인미술작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출품작 접수처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02)739-1830

아석 박희선 시비 건립

현대문학의 대표적 불교시인으로 꼽히는 아석(也石) 박희선(1923~1998) 시인의 타계 2주기 추모식을 맞아 시비(詩碑)가 건립됐다. 호서문화회 문인 등으로 구성된 '박희선 시비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재 대전대 문과대학장)는 27일 충남 공주시 계룡산 감사에 박시인의 대표작인 지비(紙碑)를 새긴 시비를 세우고 제작식을 가졌다. 충남 강경 출신인 박 시인은 지난 98년 위암으로 타계했다.

한경우 사진전 '신장상'

절의 입구에서 험상궂은 모습으로 오가는 이를 맞는 사천왕상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한국불교 신장상' 사진전이 열린다. 26일~9월 1일까지 인천 청송에 랑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사진가 한경우씨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이번 사진전에는 '화엄사 사천왕상', '보림사 사천왕상', '분황사 모전석탑 사천왕상', '원원사지 3층석탑 신장상', '흥덕왕릉 십이 지상' 등 20여 작품이 전시된다. (032)937-2500



한경우작 '화엄사 사천왕상'.



고려시대 '도금은제관음보살좌상'.

출판화계 만불명호경

萬佛名號經과 함께 하는 一萬拜 1만분의 부처님께 禮敬을 올리는 일입니다.

이제 절(拜)수행을 하는데 염주를 세며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배일배 지극정성으로 부처님명호를 부르며 하는 절수행은 환희와 신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편 집 : 도서출판 佛泉
감 수 : 월운 큰스님(동국역경원장)
역은이 : 초격 스님
보급처 : 광명선원
☎ 02) 584-1108, 587-3753
016-217-0143
가 격 : 35,000원

『만불명호경』은菩提流支 번역의『佛說佛名經』을 비롯한 총 9冊 56卷의佛說佛名經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일일이 대조 정리하여 신행생활에 유용하도록 새롭게 엮은 佛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무심으로 올리는 절(拜)은 자신의 修行을 위한 것이라면, 부처님의 名號를 독송하며 올리는 절(拜)은 願力成就의 원동력입니다.

1만 분의 부처님 명호를 통해 수행과 원력의 성취를 체험하십시오. 만불명호경을 받아지니는 그 자체가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백일기도, 천일기도, 참회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의 행복발원기도, 건강발원기도... 그 소중한 원력들을 지닌 기도를 이제는 「만불명호경」과 함께 하십시오.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도서출판 佛泉 * 많은 불자님들께 보다 널리 보급하고자 전화나 우편주문으로 판매됩니다.

두통,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고혈압, 수족냉증, 사십건...

기적처럼 낫는다!



심천 박남희 선생 15년 전 암수술당하면서 인체에 대한 깊은 연구 끝에 신심서혈요법을 창안했으며, 10여년 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그 놀라운 치료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자기의 병 자기가 고치는' 기적의 대체의학

심천 사혈요법

죽은 피(어혈)만 빼주면 모든 병이 물러간다!

인체의 각 장기와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병균이 들어오면 싸워 물리치는 '피'가 건강하지만 하연 우리 몸은 늙은 이유도, 아픈 이유도 없다. 그러나 신장이나 간기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금속이 누적되면 생기는 어혈(죽은 피) 때문에 사람은 병들게 되는 것이다.

'심천 사혈요법'은 바로 이 어혈을 직접적으로 빼내어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안전하고도 가장 확실한 자연요법이다.

각종 만성병, 난치병까지도 낫게 하는 '심천 사혈요법'의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말도 번번 근육통 무릎 통증 오심 구역 소화 불량 안과 질환 피부과 질환 혈관질환 당뇨병 우울증 간염 지방간 통풍 저혈압

심천 박남희 지음 | 값 8,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733-3135 www.mindvision.org